

금투자협회장 선거 4파전 양상

자산운용사 '표심잡기' 총력전

지난 선거 比 운용사 80곳 늘어 후보자 4명 모두 관련 안 제시 "시간 걸려도 각자 운영돼야"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권 사장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



정희동 전 KB투자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

금융투자협회장 후보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공약은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강화다. 이는 선거에서 자산운용사의 영향력이 커진 데다 증권사에 비해 자산운용사의 이해(利害)가 다소 외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3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금투협을 통해 출마를 공식화한 후보자는 총 4명이다. 권용원 키움증권 사장과 손복조 토러스투자증권 회장, 정희동 전 KB투자증권 사장, 황성호 전 우리투자증권 사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권 사장을 제외한 3명의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그들의 공통점은 자산운용사의 독립성 강화다. 현재 손복조 회장은 자산운용사, 부동산 신탁회사, 선물회사 등 업권별 협회를 모두 분리하겠다고 안을 내놨다. 황 전 사장은 자산운용사만 분리, 정 전 사장은 업권별 부문 대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놓은 상태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에 따르면 권 사장 역시 자산운용사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협회장 '캐스팅보트'

올해 유독 금투협회장 선거에 자산운용사 독립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이번 선거에 자산운용사 표가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금투협회장 투표 시 회원사들은 모두 1사 1표를 제공한다. 이 표가 의결권의 40%를 차지한다. 나머지 60%는 회원사별 협회비 분담 비율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투표권을 가진 금투협 정회원사(241개 사) 중 자산운용사(169개 사)의 비중은 절반 이상이다. 지난 2015년 자산운용사 설립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전 선거 때보다 약 80곳이 늘었다. 지금까지는 협회비 분담금 규모가 큰 대형 증권사들의 표가 중요했지만 자산운용사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 된 것이다.

또 글로벌 증시 호조와 국내 공모 펀드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자산운용사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모펀드에 비해 침체돼 있던 공모펀드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최근 6개월에만 국내주식형 펀드로 자금은 4조4274억원 유입됐고, 국내에서 운용하는 해외주식형 펀드 규모도 2조5101억원 늘었다. 자산운용사의 공간이 두둑해지고 있는 것이다.

◆자산운용사의 타산(打算)

이러한 상황 속에 자산운용사의 불멘 소리가 나온다. 바로 수수료 문제다. 또 증권사가 직접 운용하는 주가연계증권(ELS)과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 계좌) 상품 활성화로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졌다. 자칫 판매 장구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업권 분리 공약을 내놓은 손복조 회장은 "판매사인 증권사는 판매수수료를 많이 받길 원하고, 자산운용사는 실제 수익

률이 낮아지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대한 줄이길 원한다"며 "이 둘 사이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사 대표 역시 "증권사들은 판매 수수료를 놓기 싫어한다. 판매 장구가 1~2%의 판매 수수료를 받는 게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나라 사례를 봤을 때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한 협회로 묶어 운영하는 곳은 많지 않다. 물론 완전 분리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각자 운영돼야 하는 게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한편 업권 분리를 반대하는 입장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사와 증권사는 상생해야 하는 관계이고, 자산운용사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협회라는 큰 협회에 속해있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 업권 분리의 현실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자본시장법 284조에는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업권 분리는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회장 공모 기간은 4일 오후 6시까지다. 이후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해 25일로 예정된 회원총회에서 241개 정회원사의 투표로 협회장을 선출한다. /손연지 기자 sonyj301@metrosecoul.co.kr

몸집 키우는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올해 정규직 400명 채용

신입·경력 상시채용... 사업 다각화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올해 신입과 경력으로 최대 400명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모집분야는 정보기술(IT)과 웹디자인, 핀테크, 마케팅, 홍보, 해외영업, 인사, 금융투자, 법무 등 본사 부서 전체와 콜센터다. 모두 정규직이다.

본사 채용 인원은 36개 부서에 100명이다. 안정적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발과 운영, 인프라, 보안, 고객자산보호 관련 부서의 인원을 대폭 충원한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금융 부문의 금융투자 전문가, 해외사업 전략가 등 신설 부서 인원을 채용한다.

콜센터 상담원은 300명 뽑는다. 기존 콜센터 상담원 230명은 올해부터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채용 일정은 신입과 경력 모두 상시 채용 방식으로 진행된다.

직원들에게는 기본적인 야근수당과 추가 근로수당, 스톡옵션, 성과급은 물론 하루 세끼 식비,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한방 및 마사지 서비스 등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 채용 규모는 빗썸의 전체 직원 수와 맞먹는 수준이다. 빗썸에는 현재 본사 220명과 콜센터 230명 등 총 450명이 근무하고 있다.

전수용 빗썸 대표는 "청년 일자리 확대라는 사회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신규사업 확장에 따른 신규 인력을 대규모로 채용하기로 했다"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엔진인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술, 그리고 핀테크 산업을 모범 거래소인 빗썸이 앞장서 이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서울 강남일대 아파트.

/연합뉴스

대출 규제에도... 지난해 주담대 15조 증가

(주택담보대출)

주요 시중은행 총 잔액 377조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정책에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년 새 오히려 15조원 이상 늘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 등 5개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은 377조7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6년 12월 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362조7093억원보다 15조879억원 늘어난 수치다.

2016년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1조9349억원이 늘었던 것과 비교하면 주춤하기는 했지만, 대출 규모는 여전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개인신용대출도 7조원 이상 늘어나는 모습도 보였다.

5대 시중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97조368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조2186억원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대출 조이가 시작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4조8397억원이 늘었다.

이는 8·2 부동산 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막히면서 잔금을 마련할 방법

을 찾던 주택 구매자들이 신용대출을 택한 탓에 발생한 풍선효과로 풀이된다.

개인신용대출은 통상 주택담보대출보다 금리가 높지만, 정부의 LTV 규제 강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개인신용대출이 계속 늘어나면서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528조3079억원까지 치솟았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5월 500조원을 돌파한 이후 줄곧 부풀어 오르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대출 총 잔액은 지난해 말 201조263억원으로 1년 사이에 21조8022억원이 늘었다.

개인사업자대출은 사실상 개인 대출과 비슷한 성격이지만 중소기업대출로 분류돼 역시 LTV와 DTI 규제 대상으로 잡히지 않는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올해 시행 예정인 신(DTI)과 DSR(총체적상환능력시험)에 쏠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까지 한층 어려워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가계대출 총액 증가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김문호 기자 kmh@

LH, 전국에 드론 띄운다... 年 250억 신규시장 창출

215개 사업지구 업무에 활용

이르면 오는 2월부터 토지·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이 본격 활용된다. 이로 인해 신규 드론시장은 연간 250억원이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희미)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이하 LH)는 215개 사업지구(389㎢, 238조원 규모)에서 조사·설계·공사관리 등에 드론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LH는 관련 용역과 시범운용을 통해 계획부터 시설물 유지관리 단계까지 주요사업 전 분야에 대해 드론 활용을 검증해왔다. LH는 국산기술로 제작된 드론 25기를 도입, 일정 면적(약 30만㎡)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토지와 주택 관련 업무에 드론을 활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의 사업지구에서는 외주 용역을 통해 드론을 운용할 계획이다.

드론으로 취득된 공간·공사정보의 처리·가공·활용을 위해 LH는 세계 최초의 원스톱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국 LH 사

업지구 내 비행하는 모든 드론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통제에 따라 현장에 설치된 지상관제장비(내비게이션, 경로추적, 스마트폰뷰 등)를 통해 비행하게 된다.

전국 LH 사업 현장에 드론을 전면 활용하는 경우 연간 약 2500여회의 비행소요가 예측되며, 연간 약 250억 원의 신규 드론시장(시공:154억, 자산관리:50억, 계획:12억 등)이 형성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기존 연 130억원이 소요되는 항공촬영 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는 경우 비용은 절반 수준(1억 8000만→8000만원, 1㎢ 기준)으로 줄어 들어 연 6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규성 기자 peace@

무술년 첫 파생결합상품 2종 모집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는 5일까지 2018년 무술년 첫 번째 파생결합상품 2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 일본지수(NIKKEI225)를 기초자산으로 연 4.3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7924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1차), 90% 이상(2차), 85% 이상(3~4차), 80% 이상(5차), 65% 이상(만기)이다. 녹인은 없다.

의 상환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홍콩지수(HSCEI), 유럽지수(EuroSTOXX50)를 기초자산으로 연 5.00%의 쿠폰을 추구하는 '하나금융투자 ELS 7925회'를 모집한다. 만기는 3년이고 6개월마다 총 6차례의 상환 기회가 주어지며 상환조건은 최초기준가격의 95% 이상(1차), 90% 이상(2차), 85% 이상(3~4차), 80% 이상(5차), 65% 이상(만기)이다. 녹인은 없다.



모집은 각 30억원 한도로, 상품가입은 최소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로 청약이 가능하다. /김문호 기자

삼성자산운용

로보어드바이저 본격 시동

삼성자산운용은 지난 2일 조직개편에서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 솔루션 본부를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개편으로 코덱스(KODEX) ETF 운용 능력과 핀테크 기술 시너지를 도모하고 로보어드바이저 등 ETF 자산관리 사업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보어드바이저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적으로 투자자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자문, 운용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선 특정금전신탁가입 시 투자자의 자필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있어 로보어드바이저의 대중화를 위해선 비대면 일임계약 허용이 필요하다.

삼성자산운용은 자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 'KODEX 로보솔루션 1호'를 앞세워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 상용화 준비를 마쳤으며, 로보어드바이저 규제가 완화해 비대면 일임 서비스가 허용되면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